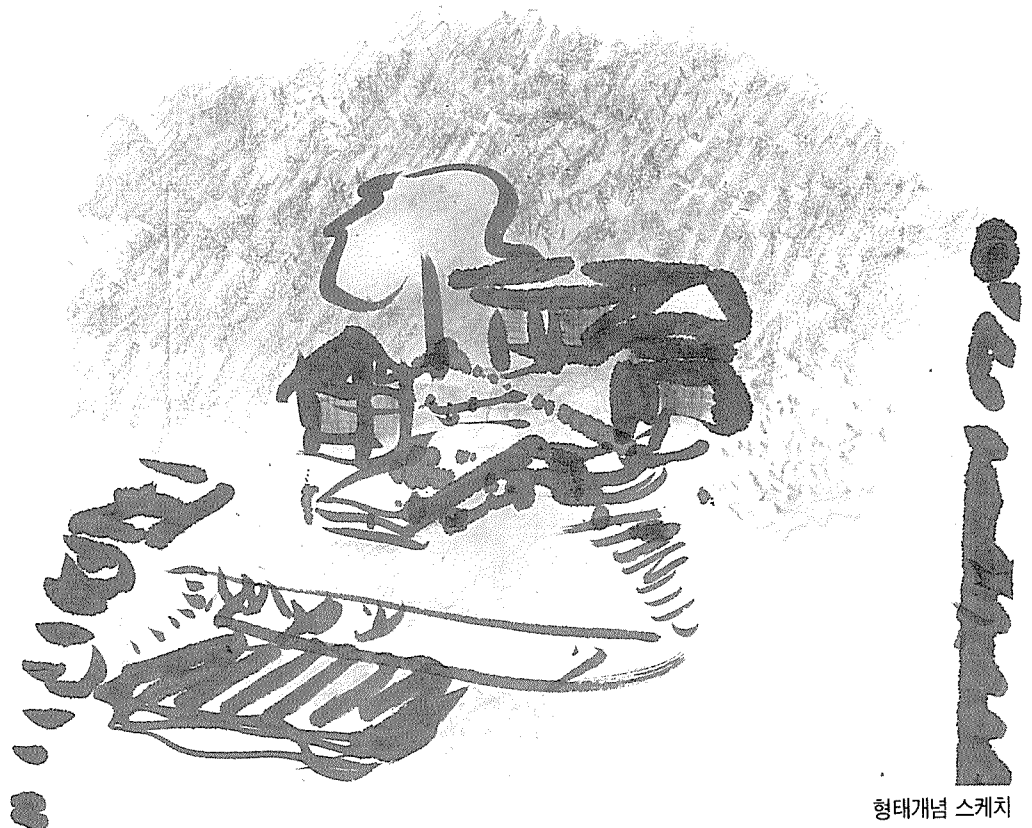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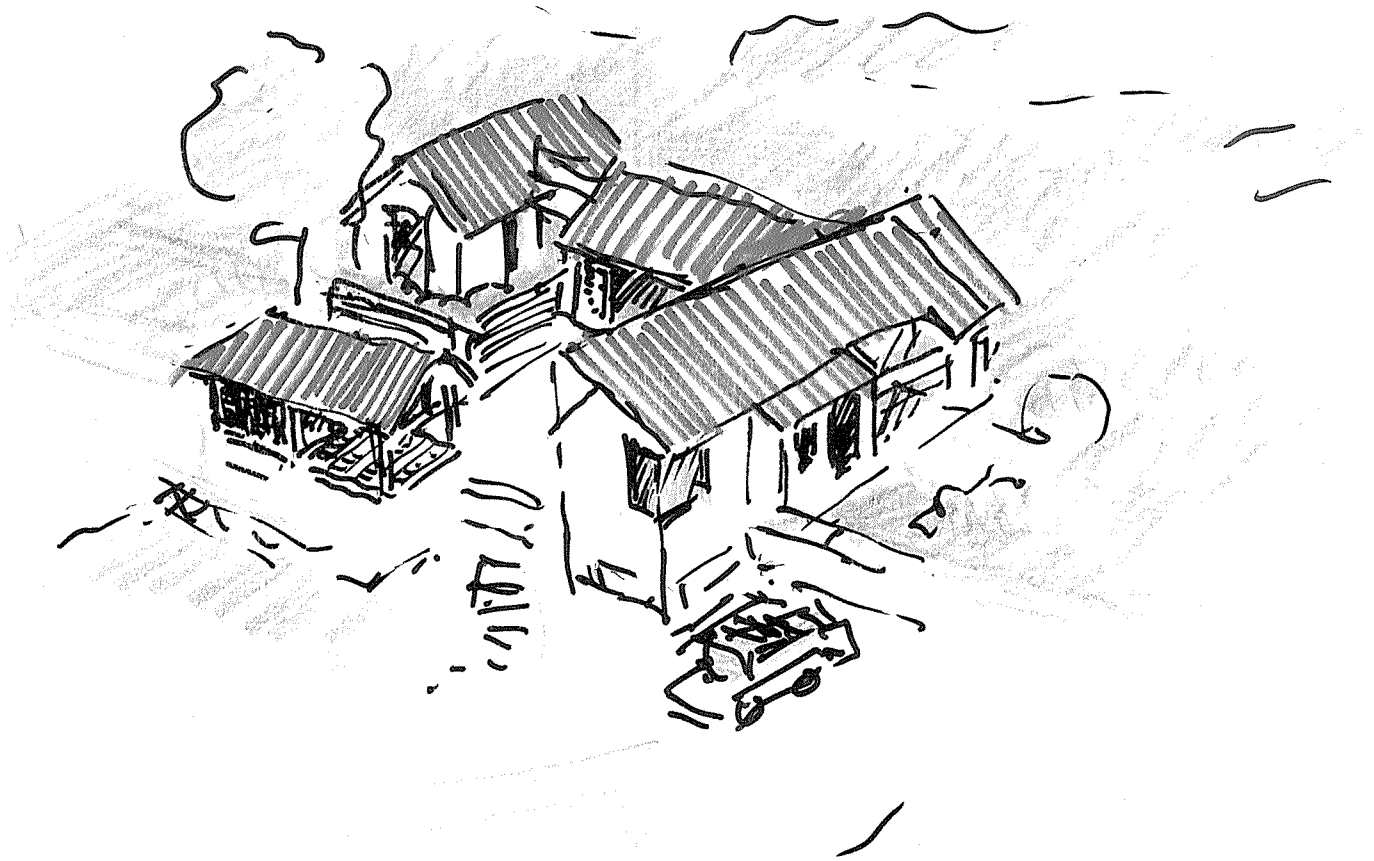


# 기산리 주택

*Kisanri Residence*

卞鍾睦/건축사사무소 들건축  
Designed by Byun, Jong-Mok



형태개념 스케치

아파트 건물의 난집시대다.

시골의 풍경을 그래도 간직하고 있는 지방 소도시 주변에도 서울근교의 신설 Bed Town처럼 높다란 상자덩이가 똑같이 들어서고 있다.

아파트주거는 그 경제성과 편리성에도 불구하고, 규격화되고 몰개성화된 실체로 인하여 가능한 한 억제되어야 할 건축방법이다.

아파트의 단지 또한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자연 경관을 완전히 무시한채 긴세월동안 형성되어온 마을의 정취를 깎그리 깎아뺏는다.

평면의 첫수만 틀릴뿐 똑같은 평면의 똑같은 입면들.

다음 세대에 이 엄청난 아파트들은 어떻게 될까?

그때의 사람들도 지금처럼 아파트 한채 얻고자 주택부금 붓고 순번기다려 뽐기하는 난리를 치를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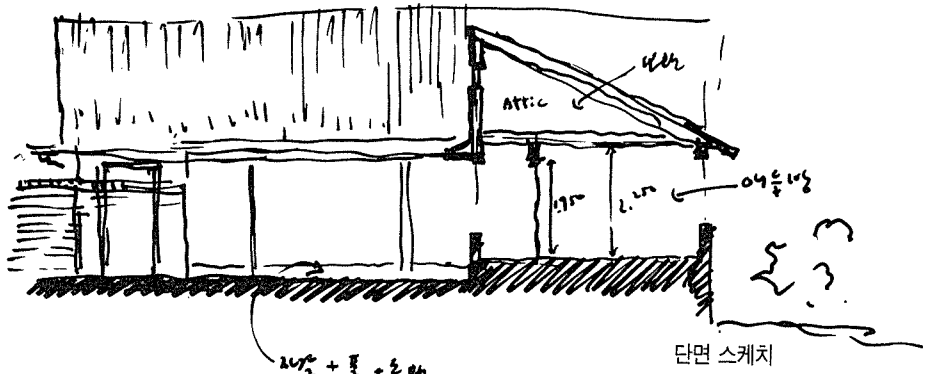
조상대대로 경작하던 터를 신도시에 수용당한 사람이 피난처처럼 옮겨가서 마련한 부지에다 집을 짓는다.

남동쪽으로 산이 걸쳐있어 긴 그림자가 덮는 계곡이 배후에 있는데 부지는 다행히 구름으로 돌출되어 있어 충분한 일조량을 획득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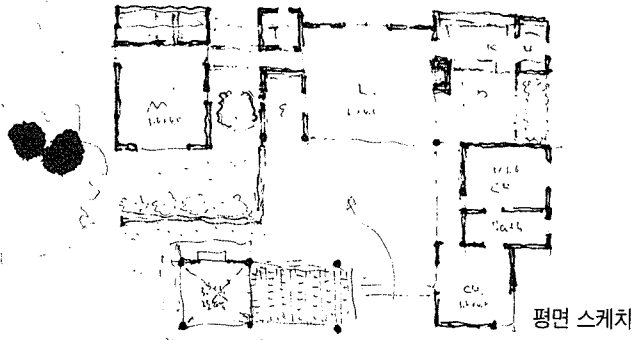
포장하고 있는 신작로에서 개울을 건너 다리가 놓여있고 몇채의 마을집들 사이로 난 길을 오르면 큰나무 몇그루 서 있는 부지가 방죽처럼 나타난다.

뒷산의 배경이 좋고 앞은 마을길로 트여지며 건너편에도 높지않은 산자락이 이어진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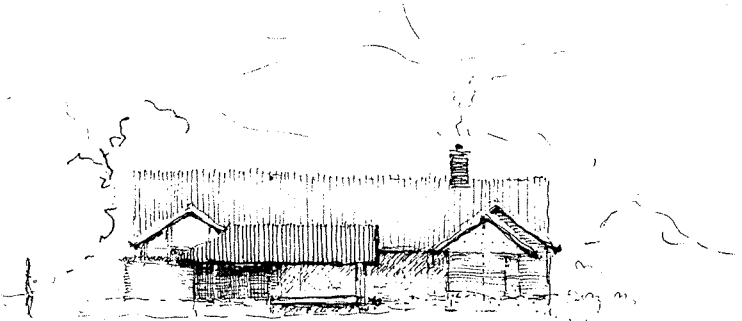
짓고살이의 새로운 고향으로 정착되어지길 바라지만 언제 또 개발바람이 이곳까지 밀어닥칠지 자...



단면 스케치



평면 스케치



입면 스케치



배치개념 스케치